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5. 21(수) / 총 2매(본문 2매)
담당 부서	신공항기획과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정용식, 사무관 민인홍, 주무관 박찬호 • ☎ (044) 201-4171, 4143
보도일시	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

김해신공항, 안전하고 소음을 최소화 하면서 건설할 예정

- '19.5.20(월) 부산상의에서 개최된 김해신공항 검증결과 시민토론회 (주최 : 신공항추진 범시민운동본부,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)에서 소위 「동남권 관문공항 검증단」이 발표한 내용은 사실과 다릅니다.
 - 첫째, 심각한 충돌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하나, 국내법령과 국제 기준에 따라 안전한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국내외 전문가 자문, 시뮬레이션을 거쳐 비행절차 수립이 가능함을 확인하였습니다.
 - 둘째, 소음피해 가옥 수도 부산 3.3배, 김해 9.4배 등 크게 확대 된다고 주장하나, V자 활주로 신설에 따라 이착륙 항로가 변경 되어 INM 분석결과, 소음은 현재보다 오히려 축소됩니다.
 - 셋째, “평강천과 서낙동강 생태계 파괴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를 왜곡하고 있다”고 주장하나, 국토부는 아직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바가 없습니다.
 - 현재 진행 중인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영향을 개략적으로 검토 중이며,
 - 향후 설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영향을 정밀하게 검토하고, 구체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할 예정입니다.

- 넷째, 공항시설 용량은 부족하고, 확장성도 없다고 주장하나,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측된 김해신공항의 항공수요는 '56년 2,925만명임에도 장래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3,800만명까지 처리 가능하도록 확장성 있는 공항시설을 계획 중입니다.
- 아울러, 국토교통부는 '19.5.10 부울경 검증단을 비롯하여 부산시, 울산시, 경남도에 부울경 발표내용(4.24)에 대한 세부 근거자료를 요청하였고, 이를 바탕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입니다.
- 금번 토론회 발표내용(5.20)은 자체적인 기준에 따라 검토한 의견으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보다는 우리 부와 함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에 협조하여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.

<관련 보도내용 (5.21, 한국일보)>

◆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가 5.20 개최한 시민토론회에서 김해신공항은 애초부터 안전성과 경제성이 결여되었고, 검증단의 공식적인 검증결과를 통해 밝혀진만큼 정부도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을 외면할 수 없을 것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민인홍 사무관(☎ 044-201-417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